

#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

박 명 남

오늘 우리의 천만군민과 세계의 진보적 인류는 한결같이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으로, 절세의 위인으로 우러러 칭송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이시며 절세의 위인이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단행본 2페이지)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숭고한 품모를 지니고 20세기를 빛내이신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시며 세계가 공인하는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다.

20세기에 인민대중의 운명개척과 세계 정치사에 흔적을 남긴 이름있는 정치가와 위인들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10대의 어리신 시절부터 80고령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탁월한 사상과 령도, 고매한 덕망으로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서 웅근 한세기를 반제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의 세기로 빛내이신 걸출한 수령,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는 없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시대의 앞길을 밝혀주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여 20세기를 자주와 변혁의 세기로 빛내이신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다.

19세기는 인민대중에 대한 자본의 착취와 억압이 더욱 강화되고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지배와 략탈에 의하여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노예의 생활을 강요당한 암흑의 세기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자본의 착취와 억압, 식민지적지배와 예측은 계속되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인민대중은 세기에 세기를 이어 대대로 물려내려오던

그 이전시대의 처지를 그냥 감수하기만 하지 않았다. 세계의 도처에서 인민대중은 자본의 예측과 제국주의식민지적예속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섰다. 독립과 해방, 자유를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투쟁이였다. 력사는 자주에로 전환하고있었으며 새 시대가 태동하고있었다.

인민대중은 실패와 좌절, 극절과 희생으로 이어진 피어린 투쟁속에서 자기의 력사적숙망을 실현시켜줄수 있는 위인의 출현을 안타까이 고대하였다. 광범한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새 시대는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길뿐아니라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길을 밝혀주는 새로운 지도사상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시대와 력사의 이 절박한 과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주시대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였다.

수령의 위대성은 사상의 위대성이다. 걸출한 수령의 사상에 의하여 시대가 개척되고 력사가 전진한다.

주체사상은 19세기에 이어 20세기 초엽까지 전 세계에 질게 드리웠던 암흑을 걷어내고 인민대중을 자주와 진보, 변혁에로 힘있게 떠밀어준 추동력이였다.

주체사상은 자주시대 혁명의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이며 인류력사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었다. 주체사상은 짓밟힌 수억만 인민들이 자주기치밑에 떨쳐일어난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것으로 하여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향도하는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의 풍부한 경험을 일반화하시고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주체사상과 주체의 혁명리론, 령도방법에는 인민대중의 요구가 가장 정확히 반영되어있고 위대한 수령님의 선견지명이 구현되어있으며 수령님께서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쌓으신 업적과 경험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있다. 이것으로 하여 주체사상은 현 시대뿐아니라 자주성을 위한 인류의 전 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불멸의 혁명사상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제국주의와 력사의 반동들과의 치렬한 대결속에서 전진하는것만큼 총대를 앞세우고 그에 의거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무장을 틀어잡고 혁명군대부터 창건하며 튼튼히 꾸려야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도 당과 국가건설위업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는 진리를 밝히시고 독창적인 선군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선군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승리의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었으며 즐기치게 전진해올수 있었다.

주체사상과 그것을 뿌리로 하고있는 선군사상은 20세기 자주시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생활력과 견인력을 발휘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20세기의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도 끄떡없이 혁명의 주체의 위력,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백전백승의 력사를 수놓아올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을 창시하시여 시대와 혁명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기때문이다.

바로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주체사상, 선

군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의 지도적지침을 밝혀주시는것으로 하여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사상리론가로, 걸출한 수령으로 칭송받고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비범한 령도로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심으로써 20세기를 빛내이신 걸출한 령도자이시다.

인류력사에서 20세기는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거세찬 혁명의 폭풍을 안아온 투쟁의 세기, 변혁의 세기였다. 전세계적범위에서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이 강화됨에 따라 피착취계급과 착취계급, 자주력량과 지배주의세력사이의 첨예한 투쟁이 벌어졌다. 20세기는 서로 대립되는 세력들사이의 투쟁에서 자주력량이 승리하여온 세기였다.

수천년동안 지속되어온 지배와 예속의 낡은 질서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무너지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20세기에 우리 민족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인민대중이 자주적인간의 값높은 삶을 빛내어나가는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빛내이시였다.

20세기의 첫 기슭에서부터 그 마지막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서 일어난 경이적인 사변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에서 일어난 많은 중요한 사변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지구상에서 영영 사라질번하였던 한 나라, 한 민족을 일으켜 세계앞에 당당히 내세우시고 우리 혁명투쟁의 전력사를 백전백승으로 수놓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20세기를 대표하는 탁월한 수령의 불멸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령도는 자주의 기치밑에 우리 혁명을 이끄시여 현대력사를 새롭게 개척하고 빛내이신 백전백승의 혁명령도이다.

자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구현해오신 혁명신조였고 혁명방식이었으며 혁명실천이었다.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사대와 교조를 배격하고 혁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혁명의 진리를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령도의 전생애에 사대와 교조를 단호히 배격하시고 자주의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해오시었다. 우리 혁명의 강력한 주체가 튼튼히 꾸려지고 제국주의와 반동들의 반혁명적공세와 좌우경 기회주의자들의 간섭책동이 걸음마다 분쇄되었으며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들이 성과적으로 결속된것은 자주로 조선혁명을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혁명령도의 고귀한 결실이었다. 오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가 이 땅위에 거연히 솟아올라 세계 진보적인류의 성새로 빛을 뿌리고있는것도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로선과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20세기의 기적중의 기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령도는 총대로 우리 혁명을 개척하고 승리적으로 이끌어오신 총대중시의 혁명령도이다.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두 차례의 혁명전쟁을 포함하여 시종일관 제국주의침략세력과의 첨예한 군사적대결속에서 전진하여왔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고말았을 엄혹한 시련의 고비를 넘어오면서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제국주의자들과의 치열한 판가리싸움과 준엄한 대결전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할수 있는것은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혁명생애의 전기간 혁명무력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여 무적의 군력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적들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우세로 타승하신것으로 하여 강철의 령장, 탁월한 군사전략가, 반제투쟁의 승리의 상징으로 세상사람들의 다함없는 칭송과 신뢰를 받으시었다. 력사에는 수많은 령장들이 알려져있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한평생 혁명의 총대를 틀어쥐고 반제대결전의 최전방에서 특출한 군사전략과 령군술로 백승을 펼쳐온 만고의 령장, 문무를 겸비한 장군형의 수령은 일찌기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20세기에 우리 혁명뿐아니라 사회주의위업과 반제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데서도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식민지민족해방투쟁과 반제투쟁을 고무하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빨럭불가담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의 전진을 위하여 바치신 불멸의 공헌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은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걸출한 위인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한없이 고매한 인간적품모와 덕망, 필승의 신념과 담력을 지니신 절세의 위인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은 한평생을 오직 혁명을 위해 깡그리 다 바치신 위대한 혁명가이시었다.

인류력사를 펼쳐보면 우리 수령님처럼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지나긴 세월 인간이 당할수 있는 모진 슬픔과 괴로움을 다 겪으신분은 있어본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자신보다 오직 혁명만을 생각하시였으며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인민들이 행복에 잠겨있는 명절이나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시고 지어는 자신의 생신날마저 공장과 농촌을 찾아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면서 혁명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분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이시였

다. 세상에 위대한 수령님처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혁명을 이끌어오시다가 순직한 혁명가는 없었다.

신념과 의지의 강자, 제일배짱가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군사적위협이 그칠새 없고 혁명앞에 준엄한 시련의 고비들이 닥칠 때마다 주저나 동요도 없이 언제나 맞받아나가는 전술로 혁명을 이끌어오시였다. 당이 있고 정권이 있고 군대와 인민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필승의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은 언제나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혁명의 추진력이 되였다.

혁명적동지애는 우리 수령님의 변함없는 혁명신조였고 혁명수행의 근본원리였다. 혁명적동지애의 최고화신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은 곧 동지이고 동지는 곧 혁명이라는 신조를 간직하시고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혁명투쟁을 시작하시였으며 한평생을 혁명적동지애의 가장 아름다운 력사로 수놓아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고결한 동지애는 동지적사랑과의리로 결합된 동지의 대부대를 낳은 자양분이였으며 우리 혁명대오를 굳건히 다지는 생명수였다.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동지애로 시작되고 동지애로 승리하여온 동지애의 력사로 자랑떨칠수 있는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동지애에 근본원천을 두고있다.

일찌기 어리신 시절부터 고결한 품성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뜨거운 인정미와 한없이 겸박하고 소탈한 품성을 지니시고 한생을 변함없이 살아오시였다. 적들앞에서는 백두산호랑이와도 같았지만 전사들과 인민들앞에서는 더없이 친근하고 다정한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남녀로소 누구를 만

나시여도 그들의 속생각을 일일이 헤아려 주곤하시였다. 자신도 인민의 아들이라고 하시며 인민들, 군인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룡담도 즐겨하시고 유모아와 생활적인 말씀도 자주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풍모에는 누구나 순간에 반하였고 매혹과 신뢰의 마음을 금치 못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계시였고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으시였지만 자신에 대한 그 어떤 특혜와 특전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인민들과 다름없이 겸허하고 소박하게 생활하시였다. 세상이 공인하는 절세의 위인이시였지만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수수한 비닐실내화와 오래된 TV를 사용하시며 너무도 겸허하고 소박하게 생활하신 우리 수령님의 한생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걱정의 눈물을 쏟게 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은 만민을 안아주고 따뜻한 정으로 보살피는 넓고 따스한 품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품에 안아 믿음을 주시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영원한 동행자로 내세워주시였다. 그러기에 어제날 민족앞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까지도 위대한 수령님을 재생의 은인으로, 민족의 어버이로 따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생을 빛내일수 있었다.

폭넓고 웅심깊은 인정미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과 두터운 우의를 맺고 수령님의 인품에 매혹되어 우러르고 따른 외국인 만해도 수만명이나 된다. 위대한 수령님은 동지부자이시였을뿐아니라 벗이 많은 분이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사상과 령도에 있어서나 풍모에 있어서 력사에 있어 본적이 없는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혁명의 수령,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으며 만민이 우러르는 불세출의 위인이시였다.